

김영란법 개정 후...

설 선물세트, 수입산 줄고 국내산 늘어

김영란법 개정 영향으로 이번 설에는 국내산 선물세트가 대폭 팔렸다.

11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진행된 설 예약판매 매출 결과, 국내산 선물은 12% 가량 신장하고 수입산은 3% 가량 마이너스 신장했다.

가격대별로는 5만원 이하의 다소 주춤하고 상대적으로 국내산 선물 비중이 높은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가격대 선물군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과일, 꽃감, 말차, 갈치 중심의 10만원 이하의 상품은 62% 가량 신장했다. 반면 작년 추석까지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던 수입 과일, 견과류, 육포 등 수입상품 중심의 5만원

신세계백, 설 예약판매 지난 설 대비 10.4% 신장

김영란법 개정 첫 설...5만원 이하 선물 다소 주춤

10만원 이하로 수요 몰리며 국내산 매출 급증해

이하 선물은 26% 역신장하며 주춤했다.

전체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은 전년 설 대비 10.4%로 두 자릿수 신장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축산(한우) 24.0%, 수산 5.0%, 농산 21.7% 장르가 크게 신장했다. 견과·차 -5.4%, 주류 -5.8%는 전년 설보다 매출이 떨어졌다.

신세계는 이번 설에 10만원 이하

선물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 한라봉 세트(6만8000원), 바다향 갈치(9만5000원), 자연을 담은 별치티백 세트(5만 6천원) 등 10만원 이하 국내산 선물을 전년 설 대비 15개 품목을 새롭게 내놨다.

한편 설 선물 가격대별 매출 비중은 5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선물이 24% 매출 비중을 기록하며 2위

까지 올라왔다. 작년 설의 경우 5만원 이하 선물이 41%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3위권으로 떨어졌다.

또 30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도 25%의 매출 비중을 보이며 설 선물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명절 선물에 대한 개인 수요 증가 현상을 반영했다.

신세계백화점 식품생활담당 김진진 상무는 "김영란법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예약판매에서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5만원 이하 선물은 다소 주춤한 반면 국내산 중심의 10만원대 선물이 고신장하고 있다"며 "설 선물 트렌드를 반영해 10만원대 국내산 중심의 선물 품목과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자랜드, 목포에 프리미엄 매장 오픈

파워센터 남약점, 지상 3층 지하 1층 총 540여명 규모

전자랜드프라이스킹(대표 홍봉철)은 11일 목포시 남약로에 '파워센터 남약점'을 오픈했다.

남약점은 지상 3층, 지하 1층, 총 540여 평 규모의 대형매장으로 목포시의 3번째 매장이자 유일한 파워센터 매장이다. 전자랜드는 남약점이 오픈함에 따라 7개의 프리미엄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파워센터 남약점은 고객들이 가전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자랜드는 작년 론칭한 조립PC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어 PC의 작동원리와 부품체계를 알려주는 교육을 진행한다. 또 주방가전 공간에서는 쿠킹클래스도 가능하다.

프리미엄 매장에 걸맞게 체험 및 휴식 공간 조성에도 중점을 뒀다. 또 고객맞춤형 소망을 위해 모바일존, 청소기존, 주방가전존, 계절가전존, 건강가전존, AV존, 건강가전존

등으로 매장을 구분했다.

한편 파워센터 남약점은 오픈을 기념해 14일까지 이벤트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행사모델에 한해 TV 51%, 냉장고 38% 세탁기 41%, 밥솥 64%, 안마의자 44%까지 할인한다. 또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 쿠쿠전자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브랜드와 금액에 따라 핸드블렌더, 스타다라기, 글라스락, 그릇세탁 토스터기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

이밖에 11~14일 4일간은 핸드블렌더, 스타다라기, 전기주전자, 전기립PC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어 PC의 작동원리와 부품체계를 알려주는 교육을 진행한다. 또 주방가전 공간에서는 쿠킹클래스도 가능하다. 프리미엄 매장에 걸맞게 체험 및 휴식 공간 조성에도 중점을 뒀다. 또 고객맞춤형 소망을 위해 모바일존, 청소기존, 주방가전존, 계절가전존, 건강가전존, AV존, 건강가전존

뉴스

기아차, 올 뉴 K3 렌더링 이미지 최초 공개



기아자동차가 올 뉴 K3의 렌더링 이미지를 최초 공개했다.

기아차가 11일 렌더링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올 뉴 K3는 2012년 출시 후 6년 만에 선보이는 2세대 풀 체인지 모델이다. 기존 K3의 다이나믹한 디자인 콘셉트에 볼륨감과 고급감을 더해 업스케일 다이

나믹 세단 이미지를 완성시켰다.

전면부는 기아차의 상징인 호랑이로 형상 그린 X타 형태로 교차된 주간주행등(X-Cross LED DRL), Full LED 헤드램프를 적용해 스타일리시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측면부는 한층 길어진 후드를 기반으로 루프를 지나 트렁크까지

리어램프(Arrow-line LED 리어램프)와 트렁크 가니쉬 적용을 통해 왜이드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볼륨감을 강화한 리어 범퍼, 전면부와 동일한 수평형 방화지시 등을 적용했다.

실내공간은 수평으로 뻗은 크롬 가니쉬를 적용한 센터페시아, 플로

팅 타입의 내비게이션, 원형 사이드 에어벤트를 통해 스타일리시함을 강조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K시리즈의 DNA를 계승해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온 K3의 디자인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며 "볼륨감을 강조한 외관 디자인과 실용성을 더한 내장 디자인으로 무장한 올

6년 만의 풀 체인지...다이나믹 디자인 콘셉트

15일 디트로이트모터쇼서 올 뉴 K3 최초 공개

뉴 K3가 준중형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3는 2012년 출시 후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까지 200만대가 판매된 기아차의 대표 모델이다. 기아차는 오는 15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올 뉴 K3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최저임금', 文대통령 약속에도...중기업계 "하다 안되면 문 달아야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착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며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만이다.

11일 한 중견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전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사실 최저임금은 생산직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혜택을 다 보게 된다"며 "그

부분을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우리도 공장 직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 50명이 외국인 근로자인데 연봉이 4500만원 가까이 된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300만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실업자 수로 따지면 그만큼 해도 100% 가까이 고용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울러 "결국 하다하다 안되면

공장이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가 이익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방에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우리 같은 사람이야 정부에서 하는 대로 하지 어떡하겠느냐"며 "다 힘든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B씨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한국 사람이 일 하려고도 않고 외국인 데려다 하는데 최저임금이 안 올랐을 경우 200만~250만원을 썼다면

올라서 300만~35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며 "서비스업 같은 경우 사람 줄이고 시간 줄이면 되잖느냐. 그런데 제조업 같은 경우 특성상 그럴 수가 없어서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B씨는 "하늘에다가 불평불만해봤자 우리 같은 사람 목소리가 반영되겠냐. 하나하나이지"라며 "힘들다고 말할 데가 있겠어? 살다가 못 살겠으면 문 닫는 거겠지"라고 하소연했다.

KT&G, 1만원짜리 최고급 프리미엄 담배 출시

KT&G(사장 백복인)은 국내 최고급 프리미엄 담배인 '에세 로열팰리스(ESSE Royal Palace)'를 전국으로 확대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에세 로열팰리스는 25여 년 전, 정조대왕이 즐겨 피웠던 조선시대 최고급 담뱃잎인 '서초(西草)'를 10% 블렌딩한 제품이다. 서초란 조선시대 당시 지금의 평안남도 양덕군과 성천군 일대에서 재배한 담뱃잎을 말한다.

특히 이 제품은 서초의 어린잎이 자라는 시기부터 조선시대 궁중음식을 들려주며 키우는 농법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 아울러 강원도에 서 자란 참나무 활성숯 필터를 적용해 깔끔하고 풍부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는 게 KT&G 측 설명이다.

에세 로열팰리스의 제품 전면에는 임금이 입던 정복인 '곤룡포'의 금색 용무늬 문양을 새겨 왕의 상징을 형상화했다.

2016년 11월 영·호남 지역에 한정 출시된 에세 로열팰리스는 지난 달까지 총 54만 갑이 판매되며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뉴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